■ 새 대법관·헌법재판관 누가 거론되나

다양성? 정통성?…사법지도 바뀐다

금년 7월부터 시작되는 대법관 5명과 헌법재판관 5명의 교체를 앞두고 후보자군의 하마평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로 새로 형성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본 골격은 참여정부 이후에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누가 발탁되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7월부터 5명씩 교체…하마평 무성

◇**누가 거론되나**=지난해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대법관이 되지 못한 인물들이 여전히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김진기 대구고법원장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이상 사시 14회), 손용근 춘천지법원장(17회), 학계의 대표격인 양창수 서울대 교수(16회), 여성 법관의 '큰언니' 전수안 광주지법원장(18회)이 그들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법관 5명, 헌법재판관 5명(헌재소장 포함)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체되는 만큼 인력 수요는 지난해에 비해 훨씬 많아 후보자군이 폭넓게 형성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 내에선 손기식 사법연수원장(14회), 장윤기 법원행정처장·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15회), 민형기 인천지법원장·이주흥 대전지법원장·이태운 의정부지법원장(이상 16회), 김능환 울산지법원장·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이상 17회), 황영목 대구지법원장(18회),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권오곤 유고 전범 국제형사재판관·유원규 법원도서관장(이상 19회) 등이 거론된다.

검찰에선 안대희 서울고검장·이종백 부산고검장(이상 17회), 김희옥 법무부차관·홍경식 법무연수원장(이상 18회)이 꼽히고 학계에선 윤진수 서울대 교수와 채이식 고려대 교수, 여성 몫으론 김덕현 변호사 등이 후보 물망에 올라있다.

◇**대법관 제청에 변수 다양**=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5명의 신임 대법관과 1명의 헌법재판관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대법원장이 5명의 신임 대법관 가운데 1명은 지역 안배를 고려해 인선하고 1~2명을 학계 출신과 여성 대법관에 할당한다면 강신욱 대법관 후임으로 올 검찰 출신 대법관 1명 외에 정통법관 출신은 1~2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6명 가운데 정통법관 출신이 절반인 3명 뿐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에 임명될 5명의 대법관 중 정통법관이 1~2명에 그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정서가 법원 내부에서

'첫 학계 출신' 대법관 탄생도 관심

팽배해지고 있다.

배기원 전 대법관 퇴임 이후 TK(대구경북) 출신 대법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김진기 원장, 박일환 원장, 차한성 원장, 황영목 원장 등 TK 출신 법관 가운데 대법관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동기모임 '8인회' 멤버로 경남 지역법관인 김종대 원장이 '지역안배 몫'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함께 나온다. '제2의 여성 대법관'과 '최초의 학계 출신 대법관' 카드도 변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광태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박광태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3일 동구 전일빌딩 7층에서 광주지역 후보와 지지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5·31지방선거 승리를 결의했다. 왼쪽부터 유태명 동구청장 후보, 전주언 서구청장 후보, 유종필 광주시당위원장, 김효석 민주당 선대본부장,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 황일봉 남구청장 후보, 송광운 북구청장 예비후보. /위직량기자 jrwi@

5·31 지방선거 현장

박준영 후보 담양서 민심잡기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3일 담양 대나무축제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심잡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담양군민의 날을 맞아 추성경기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12개 읍·면별 천막에 자리한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시대가 변해도 모든 산업의 근간은 농업"이라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희망의 정책 삼각연대' 협약식

○…김재균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4일 같은 당 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후보, 이재용 대구시장 후보와 '희망의 정책 삼각연대' 협약식을 갖는다. 인터넷 화상 회의를 통해 진행되는 이 협약식에서 후보들은 지리산동서화합특구 지정과 영·호남 1촌 맺기 등 10여 가지에 대해 연대를 다짐한다.

이형석 북구청장 후보 정책 발표

○…이형석 열린우리당 광주 북구청장 후보는 4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당에서 경제(economy)·환경(ecoline)·교육(education)·행정 및 교통(elite)·문화(exciting)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 '북구를 새롭게 하는 힘 - E프로젝트' 정책을 발표한다.

이 후보는 "광산업·디자인·첨단부품소재산업 등 광주의 3대 핵심육성사업의 배후거점 도시로서 북구의 위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일곡에서 무등산을 연결하는 에코라인 건설과 각종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할 계획이다.

양회창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양회창 무소속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일 남광주 4거리에 선거사무소를 열었다. 양 후보는 "동구는 노령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기반시설 미비로 복지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복지행정은 모름지기 체험 행정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황일봉 후보 선대본부 발대

○…황일봉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는 2일 선대본부장에 문병란 조선대 명예교수를 선대본부장으로 위촉하는 등 선대본부를 구성했다. 황 후보는 이날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시민 1,187명 '공정경선' 성명서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경선에 대해 불공정을 주장하는 시민 1천187인이 4일 '더 이상 광주정신을 훼손하지 마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정선택씨를 대표로 하는 이들 1천187인은 성명서에서 "중립의무를 져야 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에 들어가 활동하며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며 "모든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영남 화순군수 예비후보 등록

○…이영남 화순군수가 3일 무소속으로 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지난 2년여 동안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했고 잘 사는 화순 건설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2010년 화순시 승격과 전남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전하는 화순군을 만들기 위해 제2의 도전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희현·민화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해남군수 예비후보인 박희현 현 군수와 민화식 전 군수가 4일 나란히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는다.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박 군수는 4일 오후 4시 해남읍 버스터미널 인근에 선거사무실을 연다. 민 후보도 4일 오후 2시 해남교육청 앞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화순=조성수기자 css@

/ 신임 청와대 수석 4명 프로필 /

민변 출신…기획·판단력 뛰어나

전 해 철 민정수석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재야 법조계에서 활약해온 386 세대 법조인.

목포에서 태어나 초·중학교까지 다닌 뒤 경남 마산에서 고교를 나왔으며 85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소탈한 성격에 친화력이 돋보이고, 기획력과 상황판단력도 뛰어나 노 대통령이 지난해말 일치감치 차기 민정수석으로 낙점했다는 후문.

▲목포(44세) ▲고려대 법대 ▲사시 29회(87년) ▲변호사 ▲청와대 민정비서관

요직 두루 거친 정통 해수관료

박 남 춘 인사수석

해양수산 분야에서 관록을 쌓은 정통 관료 출신. 인천 태생으로 제물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시(24회) 합격 후 해운항만청 부산청 행정사무관으로 출발해 해양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 국립해양조사원 원장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과는 해수부 장관 시절 총무과장으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대통령 인수위에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했고,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몸담았다.

▲인천(48세) ▲고려대 법대 ▲행시 24회 ▲해수부 총무과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인사관리비서관

부산서 盧風 일으킨 정치학자

이 정 호 시민수석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현실 참여형 정치학자. 부산 출신으로 지난 1999년부터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2002년 10월 말 부산지역 교수 20여명을 규합해 당시 지지도가 바닥이던 노 후보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학자 그룹 내부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47) ▲부산사대부고-연세대 정외과 ▲미국 일리노이대 정치학박사 ▲신라대, 부경대 교수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동북아시대위 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9급 서기보 출발한 '혁신 전도사'

차 의 환 혁신관리수석

말단 공무원으로 출발했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강단에까지 선 입지전적인 인물. 경남 울주 출신으로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강원산업에 다니다 72년 공무원 9급 공채에 합격, 과학기술처 서기보로 첫 발을 내디뎠다. 지금까지 각 부처를 순회하며 혁신전략을 주제로 약 80회의 강연을 해 공직사회에는 '혁신 전도사'로 알려져 있다. 노 대통령과는 부산상고 동기생이란 인연이 있다.

▲경남 울주(59) ▲부산상고-건국대 정외과 ▲국조실 심사평가2심의관 ▲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

'과학계 여성파워' 선도

김선화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소재 전문가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공과대학장을 맡고 있다. 올 1월1일 순천향대 공과대학장으로 취임, '과학계 여성파워'를 선도하고있다. 또 참여정부 들어 국가건설자문회의 위원 등의 정부 위원을 맡아 참여정부 과학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차분한 성품으로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평이며 미혼이다.

▲충남 아산(50) ▲충남대 ▲서울대 공학박사 ▲순천향대 공과대학장